

탈북대학생 커밍아웃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조 소 연*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탈북대학생 커밍아웃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대학생 6명을 3~4회 이상 만나 심층면담 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경험은 커밍인과 아우팅, 커밍아웃의 세 가지 국면이 있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도 시간 흐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드러났으며, 한 시점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들의 커밍아웃 경험은 이들이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한 대처전략이자 생존전략이었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아우팅, 질적 연구, 커밍아웃, 탈북대학생

* 교신 저자 : 조소연,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초빙교수, (06978)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조만식기념관 745호, Tel: 02-820-0500, E-mail: smusy123@ssu.ac.kr

**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수집한 자료 중 탈북대학생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I. 서론

커밍아웃(coming-out)은 보통 성 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을 밝히는 것을 뜻하지만(Marcus, 1993), 최근에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이하 AIDS) 환자가 자신의 병을 가족과 사회에 공개할 때(김민정, 2009; 김은영, 2000; 김지영, 2013; 한종숙, 박경애, 2012),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밝힐 때(김연주, 2011; 민경자, 2002)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

탈북청소년이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밝히는 것도 커밍아웃이라고 한다(조소연, 2013; 2016). 탈북청소년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놀림 받거나 왕따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분을 밝힌 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한다(강구섭, 2013, 이향규 등, 2011).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커밍아웃하지 않거나, 커밍아웃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갈등한다(강주원, 2002; 이기영, 2002; 정병호, 2004; 강구섭, 2013).

그러나 커밍아웃하지 않기로 한 탈북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출신을 완전하게 숨기는 것은 어렵다. 탈북청소년은 남한청소년과 말투와 억양, 생활 습관이 달라,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숨기는 일에 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낀다. 특히 탈북청소년은 대학에 입학한 후 이러한 갈등이 큰데, 그것은 많은 탈북청소년이 탈북청소년만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대학입학 전에는 남한 청소년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학교를

나온 탈북청소년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교사의 보호를 받을 때가 많아서 대학 진학 후 커밍아웃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조소연, 2013). 탈북대학생은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연구 결과 대부분 탈북대학생은 자신과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는 출신을 공개하지 않고(82.5%), 그중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거나(8.7%), 상대가 알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사람(22.3%)도 있다(백영옥, 유조안, 2011).

탈북대학생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힌 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자기 드러내기와 숨기기 중 어느 한쪽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강구섭, 2013).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의 커밍아웃을 옹고 그름 여부로 판단하거나, 공개 여부에 따라 탈북청소년을 집단화, 유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한만길 등, 2010). 이들의 커밍아웃은 개인 성향과 처한 상황,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이향규 등, 2011). 결국,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여부와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한 개인에게도 고정불변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정병호, 2004).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에 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 드러내기 현황과 문제점을 일부 언급한 것이 있다(강주원, 2002; 마석훈, 2005; 오주리, 이수연, 2010; 정병호, 2004). 탈북대학생 커밍아웃을 주된 주제로 한 연구(조소연, 2013)에서는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경험을 내러티브 방식을 활용해 탐색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커밍아웃의 세부적이고 상황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체험을 연구할 때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적 연구를 활용함으로써, 커밍아웃에 따른 결과를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리기보다 커밍아웃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질적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탈북대학생 커밍아웃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이 연구는 탈북과 남한사회 정착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은 탈북대학생의 삶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거나 이들을 돕는 친구와 가족, 교사, 실천가에게 정책적, 실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소수자의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벽장에서 나오기(come out of the closet)"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다(Marcus, 2000). 성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진 후 편견과 낙인, 차별과 부당한 폭력 등 부정적 반응에 직면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강병철, 2011), 이것이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강병철, 하경희, 2005,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성 소수자가 커밍아웃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성 소수자 대부분은 커밍아웃 후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커밍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성 소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커밍아웃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수용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커밍아웃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더 넓히고,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등 행동의 범위를 확장한다(Kus, 1986).

커밍아웃에 관한 고민을 성 소수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AIDS 감염인이나 성매매 여성도 자신의 감염 사실과 직업을 공개하는 것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들은 언젠가 타인에 의해 아우팅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제삼자가 비밀을 폭로했을 때 가족이나 지인들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해 커밍아웃을 결심한다(민경자, 2002).

커밍아웃을 고민하는 집단 중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인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도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재일조선인임을 커밍아웃하기도 한다. 이를 '본명선언(本名宣言)'이라고 하며 본명선언은 남한 이름인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김현선, 2009; 한영혜, 2008).

앞서 언급한 성 소수자와 AIDS 감염인, 성매매 여성, 재일조선인은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성'과 '권력 열세', '차별 대우', '집단 연대 의식'의 네 가지 기준으로 정의된다(Dworkin & Dworkin, 1998).

Goffman(2009)은 커밍아웃 문제를 '가시성(visibility)'과 관련지어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자연적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

각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 드러냄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낙인감이 크거나 차별받는 집단일수록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커밍아웃은 장애인 등 가시적 낙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보다 성 소수자와 AIDS 감염인, 성매매 여성, 재일조선인 등 '비가시적 낙인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가 더 고민하는 문제이며, 이 안에 탈북 대학생도 포함될 수 있다.

2.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본 연구에서 탈북대학생이 자신을 드러내는 문제를 '커밍아웃'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탈북대학생을 '소수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탈북대학생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소수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윤인진, 2005). 첫째, 탈북대학생은 언어와 문화적 특징에서 남한대학생과 구별되고 둘째, 탈북대학생 수는 매우 적고 경제적, 사회적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 셋째, 탈북대학생은 남한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넷째, 탈북대학생만의 모임을 결성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권익을 증진하려는 집합 행동을 하기도 한다.

남한 입국 초기에 탈북대학생은 걸모습과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는 때가 많지만,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타인의 지각 가능성이 줄어든다. 탈북대학생이 점점 '비가시적 낙인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가 되어감에 따라 커밍아웃에 관한 고민은 더 깊어진다. 탈북대학생은 커밍아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소수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커밍아웃 후에 경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하기 때문이다(강주원, 2002, 정병호,

2004). 탈북대학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때, 주변 사람의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고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이것은 대인관계 위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탈북대학생에 관한 남한 사회의 몰이해와 편견에서 비롯된다.

특히, 남한대학생은 이들을 지나친 보상을 기대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다른 소수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김운영, 2010). 또한, 북한 출신자에 관해 외국인보다 아는 것이 더 없고(김혜숙, 2000), 이들을 감정적으로 미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더 멀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등, 2010). 남한대학생의 이런 생각은 탈북대학생에 대한 구별과 차별로 이어지며,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을 더 어렵게 한다. 실제로 커밍아웃하지 않는 많은 탈북대학생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며,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혼란으로 연결되어 대학생활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마석훈, 2005, 오주리, 이수연, 2010).

III. 연구 방법

1. 일반적 질적 연구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은 현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당사자가 고민하는 주제이지만, 이에 대한 개념과 특성이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대학생 커밍아웃의 의미를 당사자 입장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질적 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의 방법을 활용해 알아보

았다. 일반적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신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질적 연구이며(Snape & Spenser, 2003: 19), 이 연구 방법에서는 대부분의 질적 연구 방법에서 분석 초기에 수행하는 주제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한다. 주제분석은 질적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부호화, 범주화하여 주제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따랐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커밍아웃을 체험한 탈북대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체험을 한 연구참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사실 연구에 참여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자기 드러내기의 일면으로 보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커밍아웃 체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서 커밍아웃 체험에 관해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먼저 연구자들과 잘 알고 지내던 탈북대학생과 탈북청소년을 돕는 실천가를 통해 탈북대학생을 소개받았고, 이들과 면담한 뒤 다른 탈북대학생을 소개받는 식으로 연구참여자 수를 늘려갔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6명이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 중 5명은 여자, 1명은 남자이고 남한 거주 기간은 첫 면담 시기를 기준으로 4년에서 6년이며 나이는 22세에서 24세까지이다. 연구참여자의 전공은 간호학과 경영학, 사회복지학, 중국어학이고 연구참여자 중에는 가족과 탈북한 후 함께 사

는 경우, 혼자 탈북한 경우, 그리고 가족과 함께 탈북했지만, 혼자 사는 경우가 있었다.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윤리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먼저 연구참여자를 소개해 줄 사람에게 연구에 관한 설명 자료를 전달한 뒤 연구참여자를 소개 받았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내용과 과정을 구두와 문서로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사전에 면담에서 하고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연구 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면담 과정에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참여자가 있었는데, 이때 연구자는 면담을 멈추고 위로와 지지를 하면서 기다렸다. 참여자가 공개하기 꺼리는 민감한 내용과 신상 정보는 연구 결과에서 삭제했고 면담 내용을 익명으로 코딩하였으며 참여자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에 잠금장치를 해두어 연구 자료를 보호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이러한 대해 연구 전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4.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와의 개별 면담 녹취록이다. 공식적인 첫 면담은 2015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2017년 10월까지 연구참여자별로 두 시간 가량의 면담을 연구참여자 A, B, D와는 3회, C, E, F와 4회 진행하였다. 또한, 공식 면담 외에도 연구참여자 자주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맺었고, 함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였다.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집이나 학교에서 진행하였고, 녹음한 뒤 연구자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주로 연구참여자에 관한 생애사적 체험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커밍아웃 체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물었다. 면담 후기에는 커밍아웃과 관련한 일화를 듣고 커밍아웃이 연구참여자에게 주는 의미와 영향을 질문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면담 녹취록을 반복해 읽으면서 참여자별 분석과 참여자간 분석을 교차하며 지속해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커밍아웃 현상을 포함하는 구와 문장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다시 진술'하였다. 재진술한 문장은 공통된 주제로 묶어 범주화하고 전체 자료의 패턴과 핵심주제를 찾았다.

5.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참여자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와 오랜 기간 진지하게 만났고 연구참여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관찰하며 이해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했다.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상호주관적 검증(이남인, 2014)을 거쳤다. 먼저 수집한 자료가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반복해서 질문하였고 분석과 해석, 글쓰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불분명한 대목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 연구자와 탈북청소년을 돕는 실천가의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커밍인

커밍인은 탈북대학생이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은 채 지내는 상황을 말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에서 커밍인(coming in)은 성소수자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윤가현, 1997), 이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벽장' 속에 감춰있는 상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탈북청소년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은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탈북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로 보고 '안으로 들어감' 즉, '커밍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커밍인은 다양한 수준과 내용으로 나타났다. 면담 당시, 연구참여자에게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철저히 숨기는 경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위장하지는 않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는 때가 있었다. 또한, 드러내고 싶지만 말할 기회나 용기가 없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태도는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1) 불이익을 받을까 봐 자신을 숨김

연구참여자가 자신을 숨기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

해서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히서 직접 차별을 받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하였고, 불이익을 받은 주변 탈북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드러내지 않음을 선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중에는 자신이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남한 사람이 자신을 호기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며 의심한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남한대학생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남한대학생은 탈북대학생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지 않고(권수현, 2011), 중·고등학생보다 탈북청소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수, 1998).

자신을 숨기는 커밍아웃의 전략은 단지 드러내지 않음을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연구참여자는 북한 말씨를 감추기 위해 애쓰거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 알고 있는 타인에게 정체성을 밝히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커밍아웃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는 늘 긴장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숨기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후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Erikson, 1968), 이 시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생활하는 것은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는 또래와 친밀해지려는 욕구가 강렬해지는 때이기도 하므로, 이때 탈북 청소년은 커밍아웃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강구섭, 2013; 김윤영, 2002).

“친구들하고 좀 소외감 같은 걸 느껴요 진짜. 그래서 안 밝힐 때가 있었어요.”(참여자 B)

“어떤 애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고. 동생 애들이 근데 설마 진짜까? 근데 뭐 그래도 사람이 좀 그렇게 당하면 힘들잖아요. 친구 애들이랑 동생 애들이랑 언니 그냥 밝히지 말라고. 학교 들어가면 일반 학교 때 동생 애들이 막 왕따 당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나 봐요. 주변에서는 밝히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네요. 말한 애들이.”(참여자 C)

“저는 학교에서는 북한 사람이라는 거를 안 밝히요. 우리 과에 좀 뜰까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개들이랑 같은 급으로 전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들 보고도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 했어요.”(참여자 F)

2) 물어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음

어떤 연구참여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출신을 묻지 않으면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 방식의 드러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연구참여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마치 자기를 감추고 자기 운명을 타인에게 맡긴 채 “처분을 기다리는(참여자 F)” 것과 같다.

“또 물어 안 보는 거예요. 요즘은 좀 이게 해가 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향을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안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렇지만, 안 그러면 그냥 안 말하는 거 같아요. 그냥 말할 상황이 못 되는 거 같아

요. 뻔하니.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좀 황당한 거 같아요. 그게 뭐라고. 물어를 봐야 뭐 내가 어떻게 하든가. 별로 그렇게 진짜 그게 애매하더라구요. 내가 누구한테 말할 그럴 용기 그런 게 막 안 생기기도 하구요.”(참여자 C)

“물어보면 저는 거부 같은 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나도 굳이 말할 생각은 없는데. 궁금해한다 그러면 말해 주는 거죠.”(참여자 F)

2. 아우팅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음지라도 자신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에 의해 알려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아우팅(outing)이라고 한다. 탈북 대학생은 말투와 행동에서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기도 하고, 수업 중 발표와 조별 과제 등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신을 완전하게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가 선택한 전략인 커밍인은 오래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당사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우팅이 갑자기 이루어질 때 당사자는 물리적, 정서적 피해를 볼 수 있다(강병철, 2007).

1) 교수와 다른 학생이 공개함

연구참여자 중에는 강의 시간 중 교수가 자신의 출신을 공개하거나, 교수가 자신을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남한 학생에게 알린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알고 있던 남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신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허락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다. 이때, 아우팅한 당사자는 자신이 아우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연구참여자지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어차피 원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겠습니다.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이 애는 북한에서 왔어. 니들이 많이 도와줘. 그렇게 말했어요.”(참여자 A)

“내가 말한 건 아닌데 교수님이 어떻게 말해 주게 됐어요. ○○를 잘 부탁한다고 제가 1학기 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걱정되셨나봐요. 그래서 과대한테도 말하고 친구들이 ○○좀 잘 도와주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참여자 C)

“그때 들쭉 날쭉. 너무 당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었어요.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절 생각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오히려 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60명 넘게 들었어요. 애들, 애들이 다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대 일 상황에서 친구가 저랑 친한데 제가 말했다 하더라도, 딴 친구한테 제는 북한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죠.”(참여자 E)

2) 자신에 관한 소문이 퍼짐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관한 소문이 퍼졌던 경험도 있었다. 이런 경우 남한 학생들은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고 “뒤에서 쉬쉬

하는(참여자 A)” 때가 많았고, 연구참여자 역시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분이 나빴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우팅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아우팅을 문제화하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 퍼져나갈 것이 두려워서이기도 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는 속으로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들과 타인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연구참여자는 집단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하였다.

“과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재는 북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근데 실제로 와서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재 거기서 왔데. 그니까 막 들리는데. 막 밥 먹으러 가면 뒤에서 들리는데 쉽게 못 벨는 거예요.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 그냥 막 어떤 땐 그냥 막 가서 말하고 싶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 북한에서 왔다. 어쩔래? 하고.’(참여자 A)

“개들이 근데 뭔가 각뚱이 인사도 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래 아! 아는 것 같다.’ 아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더라구요. ‘술 먹으면서 말을 했나? 내가 어디서 왔다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말은 못하고.’(참여자 C)

3.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벽장에서 나와 주위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커밍아웃의 상황도 커밍아웃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준과 내용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완전히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드러

낼 때가 있었고, 북한 출신임을 밝혀서 도움을 받거나 남한 학생과 친해지려고 자신을 드러내는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연구참여자는 북한 출신임을 밝히는 것을 매우 당연한 일로 여기며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1) 어쩔 수 없이 드러냄

한국에 입국한 지 오래되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말투나 행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신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에 관해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타인을 통해 알려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알리는 것을 더 안전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투가 조금 변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오리지날 북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면 ‘중국 분이냐고? 일본 분이냐고? 그리고, 지금은 나가면 그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근데 말을 길게 하면 ‘어 어디지? 강원도? 경상도? 그런 쪽으로 막 생각해서, 그래서 ‘오해를 받기 전에 먼저 말해야겠다.’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참여자 B)

“조별 과제 할 때나 발표시킬 때 사투리가 섞이잖아요. 당황하면 또 사투리가 장난 아니게 나오잖아요.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시작 전에 미리 얘기하기도 해요. ‘재 뭐야? 그럴까봐.’(참여자 A)

또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감출 수 없고 시간이 지나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알려졌을 때, 대인관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커밍아웃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스스로 밝히긴 했지만, 동기나 목적을 볼 때 아우팅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커밍아웃과 아우팅은 이렇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경계선 양쪽에 있다.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나가 아니고 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게 밝혀지면 애는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몇 개월을 같이 지냈는데 왜 그것도 말을 안했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참여자 E)

“뭐 어떻게 속여요 저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간문제지. 거짓말하다 보면 어디까지나. 들통나는 날이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보면 거짓말도 잘못하니까. 잘 맞아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참여자 D)

2) 도움을 받거나 친해지려고 드러냄

대학에 따라서는 출석부 자체에 탈북민임이 명시되어 있어 학생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미 교수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탈북대학생을 상대평가에서 배제하여 학점을 잘 취득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 어떤 대학은 탈북민에게도 동일하게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출석부에 탈북민임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때, 연구참여자는 학업수행과 성적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 교수에게 일부러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조별과제를 함께 하는 집단구성원에게 미리 자기의 상황을 알려서 배려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연구참여자는 장학금이나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도 한다. 목적이 분명한 커밍아웃은 연구참여자의 오랜 고민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오히려 말하는 게 더 좋은거 같아요. 학교 과제 하는데 제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개네가 ‘언니는 그 쪽에서 왔길래.’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러면 뭔가 좀 편한 게 있어요(참여자 C)

“어차피 제가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 어차피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배워야하는 입장에서 그냥 움츠리고 그러는 거보다는 속에 있는 걸 먼저 말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움을 받는 편이죠. (중략) 그게... 엄청 고민되기해요. 안 말하는것도 고민이지만, 말 하는것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계획이 필요해요. 어찌 말할지 언제 말할지, 뭐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생각해요”(참여자 E)

연구참여자는 남한 학생과 친해지려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주로 따뜻하고 친절하거나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남한 학생과 같은 과나 동아리에 속해서 오랜 시간 만날 것 같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불이익이나 공격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대상을 탐색하고,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커밍아웃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냥 제가 얘기하면서,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볼 것 같다. 친해질 것 같다.’ 그럼 말을 해요.”(참여자 F)

“그냥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따뜻하거나 개가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거나 그러면 오픈하는 것 같아요. 친해질 것 같은 친구들은 제가 먼저 얘기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E)

3)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연구참여자는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참여자C)”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에게 커밍아웃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참여자 E)” 이었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비밀스럽고 잘못된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고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중에는 자기를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북한도 남한도 아닌 탈북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중 자기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는 커밍아웃하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다.

“그런데 나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 고향을 말하는 것인데... (중략) 나는 북한사람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북한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거니까” (참여자 A)

연구참여자는 커밍아웃을 하면 할수록 더 자주 여러 사람에게 말한 용기가 생기기도 했다. 커밍아웃 후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도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선택하게

되었다. 커밍아웃한 탈북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탈북청소년이 자신을 드러내면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억제하던 심리적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화기능을 한다. 또한, 자기를 개방하는 것은 자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인지기능을 촉진하여 성장에 도움이 된다(김지에, 이동귀, 2012; 신선영, 2009; Tedeschi & Calhoun, 2004). 또한, 커밍아웃 후 부정적인 경험을 한 연구참여자더라도 다음에 또 커밍아웃하기도 했는데, 이는 타인의 반응에 대해 “대처능력이 생겼기 때문(참여자E)” 이라고 했다.

“당당함이죠. 그렇게 할수록 더 당당해지는 것이고” (참여자 E)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참여자 C)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탈북대학생 커밍아웃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후 대학에 다니고 있는 6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면담하였다. 연구자는 일반적 질적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경험은 커밍인과 아우팅, 커밍아웃의 세 가지 국면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면담 당시,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 스스로 드러내

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타인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참여자 간 고정된 양상이라기보다 한 참여자에게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다. 탈북대학생이 커밍아웃했다고 해서 그 후로 항상 커밍아웃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커밍인을 선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커밍인하던 탈북대학생이 어떤 일을 계기로 커밍아웃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우팅 당하기도 한다. 즉, 커밍아웃과 관련한 세 가지 국면은 탈북대학생의 사전 경험과 남한과 남한 사람에 대한 인식, 커밍아웃 대상과의 관계, 욕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커밍인의 국면에서 탈북대학생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자신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려 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웠다. 탈북대학생은 교내에서 교수나 다른 학생의 의도적·비의도적인 폭로로 자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학생들 사이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렇게 커밍인과 아우팅의 불안한 경계 속에서 탈북대학생은 자발적으로 커밍아웃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커밍아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일 때도 있었다. 목적이 무엇이든 탈북대학생은 자신에게 더 우호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커밍아웃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 커밍아웃 요인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Carter, 2015). 성소수자는 보통 정서적·신체적·경제적으로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부터 커밍아웃의 범위를 확대해 간다(Ryan & Futterman, 1998).

한편, 어떤 탈북대학생은 상황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커밍아웃하는 것을 당연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는 커밍아웃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경험을 자기 정체성의 변화과정으로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며(조소연, 2013), 성소수자나 HIV 감염인, 성매매 여성 등의 커밍아웃을 '정체성의 확인과 공개'로 표현한 연구 결과도 다수 있는데(김민정, 2009; 김연미, 2003; 김연주, 2011; 김은영, 2000; 유미진, 2005), 이들의 커밍아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행위였다.

커밍인, 아우팅, 커밍아웃하는 이들은 세 가지 국면 중 한 가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도 시간 흐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드러났으며, 한 시점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커밍아웃에는 단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흐름이 존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탈북 대학생의 자기 드러내기 경험은 '시간성'과 '공간성'에 영향을 받는 순환 과정"임을 밝힌 바 있다(조소연, 2013; 2016). 이는 커밍인과 아우팅, 커밍아웃의 상황이 의도한 행동, 혹은 어떠한 결과만이 아니라, 탈북대학생이 상황에 따라 대처한 나름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탈북대학생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과거 대처 행동의 결과, 타인에 대한 관찰 결과 등에 따라 저마다 주된 대처 전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전략은 지속해서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 경험이 탈북대학생이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한 대처전략, 즉 생존전략임을 밝혔다. 그동안은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이들이 자기 존재를 밝히는 것은 그들이 적응하거나 부적응한 결과로 설명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자기 존재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타인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와 관련된 일이므로,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주어진 문제와 상황이 다양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의 통일문제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커밍아웃을 지켜보는 타자의 시선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커밍아웃 여부로 탈북대학생의 정체성이나 적응수준을 평가할 수 없고 커밍아웃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는 커밍아웃하려는 당사자들이 아우팅하는 타인에게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탈북대학생이 커밍아웃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사회의 편견이 더 문제이다.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필요가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 다문화민 감성을 키우는 교육 등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탈북대학생을 만나는 교수나 사회복지사 등은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실행을 세심하게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탈북대학생의 자기 드러내기의 상황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대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탈북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에 다니지 않는 탈북청년이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탈북민만이 아닌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커밍아웃 경험을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구섭 (2013). 탈북학생 교육의 이해. 2013년 전국 탈북학생 지도 담당교원 연수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병철 (2007).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5: 167-189.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 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강주원 (2002). 탈북자 소수집단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구별짓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2): 129-153.
- 김경미, 김민정 (2010). HIV/AIDS 감염인의 감염 이후 삶의 긍정적 경험. *사회복지연구*, 41(1), 251-279.
- 김민정 (2009). HIV감염인들의 커밍아웃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 (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1(2): 239-273.
- 김영수 (1998).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탈북자관 조사. *전략논총*, 10, 125-155.
- 김연미 (2003). HIV/AIDS 감염인의 삶의 과정: 근거이론 연구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 (2002). 탈북 아동들의 남한 학교생활과 문화적 갈등. *민족학연구*, 6: 135-156.

- 김은영 (2000). HIV 감염인의 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애, 이동귀 (2012). 외상 후 성장 집단의 판별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3(4): 1845-1859.
- 김지영 (2013). 여성 HIV/AIDS 감염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선 (2009). 국적과 재일 코리안의 정체성: 조선·한국적 유지자의 삶과 의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3: 313-367.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사회문제, 6(2): 115-133.
- 마석훈 (2005).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남한사회의 편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경자 (2002). 한국 매춘 여성의 연대와 집단화. 민주주의와 인권, 2(1): 51-102.
- 백영옥, 유조안 (2011).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생활: 진학 및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주리, 이수연 (2010).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과 대처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상담학연구, 11(4): 1807-1826.
- 유미진 (2005). 성매매 청소년의 경험과정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파주: 한길사.
- 이명진, 최미정, 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향규 (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7-32.
-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 (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정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1): 33-62.
- 조소연 (2013). 커밍아웃: 탈북 대학생의 자기 드러내기 경험. 교육인류학연구, 16(2): 123-153.
- 조소연 (2016). 탈북청소년 커밍아웃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만길, 이향규, 김윤영, 채정민, 김윤나 (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영혜 (2008).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 조선인의 아이덴티티: '민족'의 한계와 새로운 의미. 일본연구논집, 27: 281-315.
- 한종숙, 박경애 (2012). 남성 에이즈 환자의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517-534.
- Assael, H. (1995).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5ed)*. South Western,
- Carter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f gay men coming out while in colle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 Dworkin, A., & Dworkin, R.,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iddens, A. (2003). *Sociology(4ed)*. 서울: 을유문화사.
- Goffman, A.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Marcus, E. (1999). *Is it a choice?: Answers to 300 of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gay and lesbian people*. San Francisco: Harper.
- Ormston, R., Spencer, L., Barnard, M., & Snape, D. (2014). The found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2: 52-55.
- Ryan & Futterman (1998). *Lesbian and gay youth: Care and counsel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edeschi, R., & Calhoun, L.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투고일자 : 2019. 10. 16.

심사일자(1차) : 2019. 11. 15.

심사수정일자 : 2019. 11. 26.

게재확정일자 : 2019. 11. 28.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oming-out of University Students from North Korean Refugees

Soyeun Cho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oming-out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e researcher met six participants who were university students from North Korean refugees settled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 interviewed them in-depth more than three to four times, analyzed the collected data and derived the key topics by using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results, there were three aspects of the coming-out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coming-in, outing and coming-out. These aspects were shown in very diverse and complicated forms by time, even for a single person, and sometimes were appeared several of them simultaneously at one time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coming-out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as a coping and survival strategy for their lives in South Korea.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revealed the social meaning of these experiences and made practical suggestions.

Keywords : *Coming-out, North Korean refugee, Outing, Qualitative research,
University student from North Korean refugee*